

## 합격기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마지막까지  
포기 하지 않고  
힘을 낸다면...



### 이 정 미

- 부산공업고등학교 졸업
- 영산대학교 법학부 졸업
-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정미입니다.

저는 실업고출신이며 메이지 대학을 나온것도 아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탓에 무사히 합격할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다른분들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지만 제 수기가 다른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II. 3번의 제1차시험

09년도에 휴학을 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고 부끄럽게도 토익도 10년도에 넘기고 사법시험도 말만 준비한다였지 방대한 공부에 질려서 공부를 3개월가량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1년도에 이르러 겨우 시험장분위기를 알기 위하여 시험을 쳤습니다. 11년도에 복학을 한 후 여름방학 무렵, 12년도 1차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6개월가량 소요되었는데 성적이 그리 좋지않아 고민끝에 공부방법을 바꾸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때에 든 생각이 기왕 하기로 시작한 것 무도 아닌 두부라도 잘라보자라는 심정으로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생각하였던것 같습니다.

12년도에 학교를 다니면서 민법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보던 책은 맞지 않는듯하여 민

법을 김준호저로 하는 김동진강사님의 인터넷강의와 학교공부를 병행하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1학기 내내 대리파트를 넘기지 못하였고 여름방학에 휴학을 하고 토익을 넘긴 후 본격적으로 민법공부를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좀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하여 신림동에 올라왔는데 이때까지도 김준호저를 다 못본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김동진강사의 11년도 진모를 함께 풀었는데 그래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린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때 항상 앞뒤로 관련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고 조문을 챙겨서 보았는데 볼때는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렸으나 결과적으로 저의 민법실력이 향상되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법은 11년도 진모를 반복하여 풀었고 항상 스태프위치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공부하였으며 1차시험기간 내내 매일 조금이라도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민법기본강의를 끝내고 바로 헌법을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교재는 정회철저서인 기본강의 헌법을 보았는데 김유향강사의 O·X기출집을 두 번정도 풀고 헌법700제를 지엽적인 문제를 삭제하면서 한번 풀었습니다. 헌법은 김유향강사님이 강의시간에 기출위주로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본서를 중심으로 보았는데 책을 볼때마다 기출지문을 체크할수 있어서 좋았고 동강사님의 조문집을 수회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본시험

이 진모보다 쉽다고 여겨져서 진모는 풀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11년도에 들은 신호진강사님의 강의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여름에 이용배강사님의 판례강의를 한번 들은 후 신체계형법을 구입하여 혼자 두 번정도 정독하였습니다. 총론부분을 처음 공부할때에는 너무 어려워서 한 장에 한시간을 할애했을 정도였으나 잡고 나니 1차 공부기간중에는 세과목 중 가장 수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문제집은 이용배강사의 11년도 진모를 반복하여 풀었고 이용배강사의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시험이 한달앞으로 다가올수록 두꺼운 기본서를 읽는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형법은 중요부분이 아니면 기본서를 거의 보지않았고 헌법만 문제집보다는 기본서를 빠르게 읽었습니다. 마무리 강의는 듣지 않았고 전국모의고사를 풀고 민법은 주요지문정리(김동진저)를 한번풀었고, 형법은 700제 각론파트를 한번 풀었으며, 헌법은 기본서를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신판례를 무료 강의를 통하여 숙지하였습니다.

선택과목으로는 국제거래법을 하였는데 이 역시 11년도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12년도에는 시험치기 일주일전에 삼일정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국제거래법 기출문제집만을 풀었습니다. 1차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법전, 문제푸는 연습, 그리

고 최신판례인것 같습니다. 다만 민법의 경우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다른 두 과목에 비하여 떨어지지만, 그래도 중요판례는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려 애 씁니다.

1차공부시에 제가 특히 염두에 두었던 것은 시험장가서 시간내에 문제를 정확히 읽고 풀수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마다 사소한 실수, 가령 옳고 그름을 잘못읽고 답을 체크하는것에 대하여 항상 유의하였고 한번 답을 고르면 웬만하여서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문제를 풀때마다 긴장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틀린문제의 오답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으나 왜 틀렸는지에 대하여 항상 숙지하려 하였습니다. 특히나 민법의 경우에는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한번에 정확히 정답을 가려내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책을 반복하였고 민법과 형법진모 역시 여러번 반복하였음에도 항상 처음푸는 것처럼 스탱워치로 시간을 체크하며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읽을 때 법은 물과 같다라는 교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은 양이 너무 방대하여 암기하고자 하면 공부를 끝까지 할수 없기 때문에 이해위주의 공부를 하려하였고 휘발성이 매우 강하여 지속적인 반복만이 정답이라

고 생각하였는데 다행히 이러한 방법들이 저에게 맞아서 13년도 1차를 치르고 바로 2차준비에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 Ⅲ. 12년 제2차시험 준비

#### 1. 예비기간 및 제1순환기간

동차를 노렸으나 후사법을 제대로 공부한적은 처음이고 갓 1차를 치른직후여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무슨말인지 알아 들을수 없고 책을 보는데에도 시간이 너무 걸렸으며 사례집을 먼저 읽으려고 애쓰며 3순환 학원강의를 수강하였으나 결국 동차를 포기하고 3월에는 김혁봉강사님의 그해 예비강의를 시작으로 민소는 이창한강사님의 통합민사소송법과 강의, 형소는 정주형강사님의 최종정리와 강의, 행정법은 김기홍강사님의 강의를 선택하여 기본서를 읽으며 6월시험전까지 작년 1순환동영상을 수강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여도 그 때는 제가 너무 조급하게 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때 차분히 기본서를 보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초시를 치르고 학원에서는 바로 민사소송법 1순환강의가 시작되었으나 저는 이미 작년 1순환을 공부 하였다는 핑계와 함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민사소송법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학원조교가 되는 기회가 생겨 1순환 정주형강사님의 형소부터 다시 수업을 들었으나 공부는 쉽사리 되

지 않았고 행정법은 김기홍강사님이 사시강의개설을 하지 않아 동강사의 행사강의를 들었으나 행정법이 너무 어려워 원래 순환기간보다 더 오래 강의를 들었습니다. 상법과 형법은 1순환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으나 따로 혼자 공부를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민법은 학원만 왔다갔다 하며 겨우 들었으며, 헌법역시 강의를 듣지않는 날이 비밀비재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복습은 매일매일 밀렸습니다. 이때는 심적으로 힘든 개인사와 함께 새롭게 소화해야하는 많은 공부량 및 이를 암기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치여서 슬럼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 2. 제2순환기간

2순환이 다가와도 저의 컨디션은 크게 좋아지지 않아서 학원을 제외하면 하루에 공부시간이 최대 5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놓을 수는 없어서 민사소송법은 작년 제1순환 동영상을 2순환기간에 다시 보면서 모의고사를 치루웠고 상법은 수업없이 모의고사만을 치렀으나 3월이후에는 상법책을 똑바로 본적이 없어서 답안지를 보면서 겨우 답안 작성을 하였으며 형사소송법은 책이 그나마 얇아서 읽고 답안작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법의 경우 문제제기를 쓸수조차 없어서 늦은감이 있어도 과감히 정선균강사님의 강의로 바꾸면서 행정법역기스를 기본서로 삼

고 핸드북을 구입하여 보았으나 답안 작성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형법은 문제조차도 너무 어려워서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밀비재하였고 답안을 작성하여도 점수는 20점 초반 점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2순환 기간이 제일 마음고생이 심한 기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매일 울다시피 하였고 책을 잡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책을 읽어도 수시로 판생각을 하여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일수 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순환 막바지인 민법때 민법만이라도 답안지 작성을 성실히 하고자 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때도 하루에 혼자책을 보는 시간은 학원을 제외하고 3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윤동환강사님이 답안지 첨삭을 해주셨는데 하루에 몇시간 공부하냐는 질문에 너무 부끄러워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이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하기로 계획을 짠습니다.

우선 그동안 답안지 작성및 복습을 게으르게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공부시간을 좀더 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3법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쳐보니 기본3법은 논점잡기도 힘든적이 종종있었으나 후사법은 기본삼법에 비하여 비교적 질문이 명확하고 학원가에서도 교수님들의 채점역시 기본3법에 비하여 후하다는 소리가 많았으므로 결국 당

락의 좌우는 기삼에 달렸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민법은 양이 방대하고 시험직전에 다 볼수없으므로 1차때처럼 매일 하루에 민법기본서 맥을 두시간정도 읽고 헌법 내지 형법을 번갈아가면서 민법과 같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사법 하나씩을 함께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은 속도있게 읽혀지지 않았고 진도는 밀리기 일수라서 10일동안 민법반권, 형법, 민소를 보기로 하였다면 3과목 모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잡고 있는다면 그만큼 늘어지게 되므로 비록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할당된 시간이 끝나면 바로 다음 과목으로 옮겨갔고 그렇게 보다가 다시 이전에 다 못본 과목을 보게되는 날짜에는 이전에 보았던 부분부터 다시 책을 보았고 앞부분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제목 및 키워드 위주로 보았습니다.

사실 2순환기간에 케이스집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기간 역시 게을리 지나갔기 때문에 전과목을 모두 케이스집을 끝까지 똑바로 본 과목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전에 제대로 보지않은 모의고사를 꼭 목차를 잡고 풀어보고 답안을 빠르게 스킵하여 나갔습니다.

### 3. 제3순환기간

3순환민사소송법이 시작되었을때

저는 이기간은 정말 성실히 보내리라 다짐하고 그전날부터 다음날 시험범위를 공부하였습니다. 책을 통합민사소송법을 보았고 다행히 2순환기간에 민소를 혼자공부한시간은 적었으나 앞부분을 동영상으로 두 번정도 본 기억 때문인지 빠르게 책을 읽어 나갈수 있어서 하루에 빠르면 3시간에서 늦어도 4시간에 100페이지정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테디를 하면서 케이스집을 중요문제만을 한시간 보았는데 주된 목표가 흐름을 읽기 위하여 보는 거였기 때문에 따로 목차는 잡지 않고 문제를 보고 논점을 간략히 잡아본후 케이스집을 읽었고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면서 6문제 정도를 보았던것 같습니다..이때는 민법세시간, 후사5시간, 헌법내지 형법 한시간정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상법에 오면서부터 많이 버거웠고 상법은 하루에 150페이지를 육박하여 보아야 할때도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민법, 형법 또는 민법헌법을 함께보겠다는 저의 계획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획을 유동적으로 수정해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3순환때에도 여전히 답안작성이 어려워져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늦게 읽는 편이 아님에도 행정법은 항상 다른 과목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것 같습니다. 때문에 행정법 순환때에는 기본서를 차분히 읽어 나가면서 이해하자는 심정

으로 보냈고 순환이 끝난후에도 행정법예기스를 매일 40페이지 정도 읽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상 본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정리와 최신 경향이 반영된 모의고사를 주로 보았으며 특히나 변호사시험문제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명선판례집을 함께 보았는데 재심이전까지만 보았기 때문에 실제시험에서 재심이후부분이 나왔을때에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민법은 2순환이 끝날부렵부터 하루에 꾸준히 2시간가량 읽어오던것이 3순환에 이르러 눈에 띄게 향상된것이 보여서 정작 민법순환때에는 다른때보다 열심히는 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형법은 그동안 이재상강사님의 이케바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순환 첫날 치름 시험이 여전히 20점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문제점을 알기 위하여 하루를 꼬박 투자하여 2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대충 풀고 읽어 보고는 제가 잡지 못한 논점만을 모아서 형법 오답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공범파트에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잡아서 어느정도 안도의 한숨을 실수 있었습니다.

헌법은 지난 3순환기간동안 300제를 읽었었기 때문에 다행히 3순환때는 어느정도 답안지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300제는 책은 얇지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답안지에 제가 현출할수 있는 부분만큼을 보기위하여 쓰기 어

렵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삭제해가면서 몸에 체화시키는 심정으로 읽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위주로 공부하였고 정회철 변호사님의 헌법연습을 함께 보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다 읽지 못할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 부분은 다 읽고 나머지 부분은 중요한 파트만을 체크하여 읽었습니다.

형광펜을 이용하여 기출은 노란색, 판례는 주황색에 체크하였는데 책이 너무 번잡하고 기출문제집을 따로 풀지 않아서 기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나중에는 판례에만 주황색 형광펜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책을 빨리 볼때 판례임을 숙지할수 있어서 좋았던것같습니다.

#### 4. 제4순환기간

제4순환기간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마지막 한달이니 만큼 공부량을 더 늘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기본삼법을 매일매일 보고 후사법을 하나 곁들이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공부 시간은 기삼4시간 후사 9시간, 총13시간을 잡았습니다. 기본서를 읽고 문제도 풀고 하면 이 정도는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사례집을 함께 볼것인지와 관련하여 저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케이스집이라고 생각하여 케이스집을 다 못본것에 대하여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사실 모의고사와 케이스 기본서만으로도 이미 양은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줄이는것이 저

에겐 좋았습니다. 물론 세가지를 다 소화할수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4-3-2-1을 짚으나 기본삼법을 보다보면 6시간을 넘기는일은 부지기수였고 후사를 5시간에서 7시간밖에 못보는 날이 많아서 13시간을 보겠다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3-2-1계획은 수정되어 5-3-2 이렇게 잡고 책을 보았고 14시간 계획을 잡아보아도 지쳐서 전체 수험기간 중 하루정도만 그렇게 보았고 많아봤자 13시간, 평균 11시간에서 12시간정도만 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조금하게 먹지 않고 모든과목을 그동안 풀었던 모의고사를 복습하면서 기본서는 중요부분을 중점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행정법은 제가 가장 취약한 과목중에 하나였는바, 마지막 한달중 이주 정도는 매일 행정법백기스를 한시간씩 봤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하루에 총 다섯과목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과목을 진득하게 볼수 없는 성격이라서 비록 과목당 진도는 좀더 늦게 나가도 여러과목을 함께 보는 것은 저에게는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제3순환 기간 내내 시험장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제 성격상 단권화정리는 양도 많고 주어진 시간내에 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과감히 정리를 포기하고 계속 반복을 하여 머릿속에 넣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생각해도 너무 무모 한것이 아니

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수험기간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중 하나였던것 같습니다.

#### IV. 컨디션 조절

스탑워치로 순수하게 12시간을 공부하면 사실 최소 16시간은 책상앞에 앉아있었는데 자세가 앉좋은지 시험이 얼마안남은 시점에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일주일간 복용하면서 공부를 하였고 아침에 눈뜨면 바로 독서실에 나갔기 때문에 세안이 꼼꼼하지 않아서 트러블도 많이 생겼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사람들보다 많이 뒤쳐져있었고 제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면 후에 불합격을 하고 분명히 후회할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는 생각으로 공부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할때에는 법정스님의 책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러 노력하였고 3차 면접을 보는 상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스터디가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저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저만 뒤쳐진다는 것이 싫어서 더 노력한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1차수험기간부터 2차까지 종종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수면보조제를 복용하였으나 결국은 몸에 맞지 않아서 비타민제와 한약을 먹고 낮잠을 자는 식으로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것이 힘들었으며



잠이 부족하면 공부가 되지않아서 시험기간내도록 낮잠까지 포함하여 하루에 6~8시간의 수면을 하였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지쳐서 10시간을 꼬박 잤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라고 해서 공부를 쉬지는 않았으며 일요일에는 공부시간은 적어도 독서실에 꼭 나갔습니다.

공부가 잘되지 않으면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울었는데 결국은 제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여 그럴수록 더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명상도 가끔 하였습니다

수험생은 체력과 뇌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술을 가급적이면 많이 마시지 않았고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 하였으며 방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서 책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의아니게 식사량을 줄였는데 1차기간에 찢 살도 빠지고 잠도 덜 오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 V.답안작성 관련

실제답안지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문제에 주어지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사안포섭에 넣으려고 하였고 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짜맞추는 것이 아닌 읽기 쉬운 답안을 쓰기위하여 애 는데 정작 시험장에서는 긴장하여 제대로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일반론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수험생이 적으므로 가급적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요부분만을 적고 학설역시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언급하고 중요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히 적고 넘어가고 대신에 판례의 비중과 결론, 특히 포섭부분의 비중을 높이려고 애 씁니다. 그리고 결론역시 엄청난 이견이 없는 이상 판례의 결론을 따랐습니다.

목차는 시간과 지면관계상 세분화하지 않았으며 목차잡기가 어려운 문제는 목차를 간단히 잡고 포섭을 한바닥씩 써서 거의 통으로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수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알아보기 힘든것은 성적의 불이익은 없다고 하나 글자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가독성을 살리기 위하여 답안지 작성을 마무리 한 후에는 간략하게 글자수정을 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아서 묻는것이 명확하다고 생각되면 불만해도 백화점식 나열을 피하여 사족을 쓰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많이 쓰는것이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점수를 얻는데 유리한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은 법의 기본인바 중요한 법조문은 반드시 넣으려 하였고 형사소송법은 정주형 강사님의 말씀대로 규칙이 있는곳에서는 지엽적이지 않으면 규칙까지 명시하였습니다.



## VI. 감사인사-마치며

사법시험은 공부량이 너무 많고 법은 유기적이라서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이해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역시 항상 이해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였고 덕분에 암기량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려고 하면 책을 볼 수 없어서 항상 흐름을 익히면서 편안하게 책을 읽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수험기간 중 뒤늦게 후회되는 한가지는 볼것이 너무 많고 이미 기출이 녹아있을 것이라는 핑계로 기출을 살뜰히 보지 못하였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기출을 좀더 비중있게 챙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변호사 모의고사문제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강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본격적인 준비는 3순환 부터이고 1순환과 2순환은 위밍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1,2순환을 차분히 따라가신 주위분들 혹은 학원을 가지 않으신 분들도 수험기간내내 성실히 임하셔서 모두 높은 등수로 붙으셨으나 저처럼 초반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낸다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3순환 시작이 될때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저처럼 너무 힘들어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옹아매어 끝까지 완주하

지 못하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고 뒤늦게 다시 시작한 부족한 사람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하늘이 도와 무사히 합격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이 백여일 남은 시점에 초시에 300점이 채 되지않은 점수를 고려하여 하루에 열시간씩 공부하여 1점씩만 올라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적은 100점 가까이 올라서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법조인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드디어 효도할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저를 돌봐 주셨을 저희 외할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혹여나 제가 떨어져서 상심이 클까봐 노심초사하셨던 외할아버지와 아버지, 지호, 동근이에게도 감사합니다.

공부한답시고 무심했던 저를 챙겨준 오댕, 나래언니, 둘이, 경민언니, 은정언니, 귀여운 동생 지예와 동창이오빠, 2차스터디멤버분들과 면접스터디를 함께한 모든 분들과 한림법학원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림동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틈틈이 보던 고시계에 제가 수기를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기회를 주신 고시계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